

서부권

해남산 양파 종자 개발... 年 140억 로열티 없앤다

그동안 양파 재배농민들은 외국산 종자 때문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고, 전북 양식 어민들은 여름철 고수온기에 마땅한 먹이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당면한 현안을 해쳐나가고 있다.

◇일본 양파종자에 도전장=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연간 140억원에 달하는 일본산 양파종자 수입에 따른 외화 지출을 막고자 국내 최대 종자회사와 손을 잡았다.

해남군은 20일 국내 시장점유율 22%의 국내 최대 종자회사인 (주)농우바이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3년간 매년 7ha에서 생산되는 양파 종자 전량을 수매, 전국에 판매하기로 했다.

국내 양파 종자 시장은 200억원에 이르지만, 품종 개발에 10년 이상 걸리는 등의 어려움으로 구성된 서울팜오케스트라를 초청, 양파의 지난 1998년 '국제 품종보호대상

郡, 국내 최대 종자회사와 MOU 일본산 종자에 도전장 수산, '곰피' 양식 성공... 여름철 전복먹이 고민 해결

작물'로 지정돼 국내산 우수 종자가 부족했던 한국 농민들은 비싼 로열티를 주고 일본산 종자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엔화 가치가 상승할수록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은 커져 왔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농민들은 일본산보다 저렴한 국내산 종자를 양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해남에는 32 농가가 전국 양파 종자 양산량의 25%에 이르는 연간 8t(12억)의 양파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20억원 가량의

종자를 생산하면 50억원의 종자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입종자의 절반가량을 해남산 종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전복먹이 고민 해결= 전북 양식업계는 매년 여름철이면 전복 먹이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했다.

바다수은이 상승하며 '갈녹을 현상'으로 인해 전복먹이로 사용하는 미역·다시마 등 생산량이 감소해 8~11월은 전복 먹이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립 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

센터가 지난 2008년 2년여의 연구 끝에 대형 갈조류 '곰피'를 새로운 대체먹이로 개발하는데 성공, 돌파구를 찾았다.

바다수은을 구성하는 해조류인 곰피는 생체·전복 등 유용 해산동물의 먹이원이면서 쌀 채소 등 식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곰피종묘 총 100톤(중사 20kg)을 완도군과 해남군 관내 어업인들에게 무상 분양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양식종인 물량은 2008년에 비해 21.5% 증가한 9억 1000만 마리로 전복 먹이로 사용할 해조류가 45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곰피양식 연구성과가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해조류 양식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위해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양식현장을 방문해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이상선기자 sslee@



진도 '국제 씨뮤직 페스티벌' 28일 개막

선교사 초청 'CM파워 특강'도

국제적인 크리스천 뮤직 문화축제인 '2010 진도 국제 씨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도군 가계해수욕장에서 열린다.

'깨끗한 바다에 흐르는 건강한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크리스천 뮤직 아티스트 등 대륙별 수준 높은 아티스트를 정식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 남도국악원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조성모·조수아·어노인팅·셀의 장막·데니정 등 크리스천 및 대중

음악 아티스트들과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기존 무대에서 벗어나 조개모양의 아름다운 무대에서 'C+MUSIC 라이브 콘서트'와 함께 '석봉토스트'의 김석봉 대표와 케냐 선교사인 유니스 선교사를 초청, 삶의 지혜와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CM파워 특강'도 열린다.

이와 함께 진도의 다양한 문화·관광지를 소개하고 폭넓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진도체험 어드벤처가 진도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에 전기 공급 100년!

한전, 내달 31일 다양한 행사... 기념비 제막식도

올해로 호남지역 최초로 목포에 전기가 공급된지 100년을 맞아 공원과 기념비 건립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1911년 전국 3대 항구이자 6대 도시였던 목포에 당시 '목포전등주식회사'가 창립해 호남에서 제일 먼저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20일 한국전력 목포지점(지점장 하봉수)에 따르면 다음달 31일 50명으로 구성된 서울팜오케스트라를 초청,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대중가요 및 클래식 서울팜스 편곡 연주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 소외계층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초청행사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 금화동 13번지 최초 발전소 장소에 기념비를 건립해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킬 방침이다.

하봉수 지점장은 "호남 최초로 목포전기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목포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받아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아름다운 동산가꾸기

새마을운동 신안군지회 장산면협의회(회장 정성기)와 부녀회 회원 40여명은 20일 장산면 오음리에서 '아름다운 동산가꾸기'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잡초제거 작업은 장산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지역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취재본부=조원경기자 wncho@

이곳에 오면 '완도 절경' 한눈에

서망산 전망대 등 100곳 선정

완도군은 지역 곳곳에 있는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 100곳을 선정했다.

조망점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자연경관을 제대로

사상리 영주암 ▲상항봉 정상 ▲보길면 연승리 전망대 등이다.

이번 조망점은 ▲자연경관자원 ▲농산어촌 경관자원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역사문화 경관자원 등으로 분류해 주민 의견 청취와 현지답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조망점에 안내판·안전간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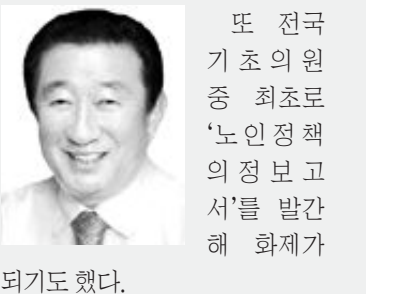
축하 화분·쌀 복지시설에 기탁

영광군의회 이종윤 의장

영광군의회 이종윤(사진)의장이 최근 의장 당선 축하하기 위해 보내온 화분과 화환·쌀 등 60여 점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20여 개소에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3선인 이 의장은 지난 9일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제적의원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이 의장은 군에 '맞춤형 노인 복지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소외지역과 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또 전국 기초의원 중 최초로 '노인정책의 정보고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라도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며 "마음과 행동이 맑고 탐욕이 없는 청렴을 생활화하는 의회로 만들어 군민에게 존경받는 지역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해경 내달 31일까지

불법 수상레저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목포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자 및 레저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38일간 바다와

육지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면허조종 행위 ▲정원초과 운항행위 ▲수상레저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이다.

또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멍조개 등 안전장구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영업구역·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항만청 29~30일

'청소년 해양체험캠프'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창원)은 복지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29~30일 1박2일간 진도청소년수련관에서 '2010년도 청소년 해양체험캠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체험캠프에는 관내 2개 복지시설 청소년 80여명이 참여해 레저카약·무동력 고무보트 등 해양레포츠 활동과 해양문화유적 체험을 하게 된다.

정창원 항만청장은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해양체험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GG경매 컨설팅(주)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with tables for various properties and contact info.

탑공인중개사 광천동신축상가임대 Real estate listings for a new building in Gwangcheon-dong.

아담공인중개사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 Anam area.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listings for Daein-dong area.